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강한 믿음을 가져야



김기하

- 서울 영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8회)
-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I. 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부 때 전공을 법학으로 정하고, 사법시험까지 도전해보았지만 개인적인 사정 및 노력이 부족하여, 한 때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였던 제가 합격수기를 쓸 자격이 있는지 지금도 몇 번을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아도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로스쿨 재학 중에 우수한 성적을 받다가 수험생활에 들어가게 된 분들보다는 로스쿨 1~2학년 동안 평범하게 교과과정을 보내고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호사시험이라는 무대를 마주하게 된 수험생들을 주된 독자로 생각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우선 제가 로스쿨 재학 중에 했던 학습교재 및 학습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제가 겪었던 경험과 시도했던 방법 중 변호사시험합격에 유의했던 점과 유해했던 점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이야기해보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I. 3학년 이전의 학습방법에 대하여(기초 다지기)

1. 학원 강의 및 교재의 활용에 대하여

저는 로스쿨 1~2학년 동안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박승수 강사의 교재를, 형법은 신호진 강

사의 교재를, 형사소송법은 신광은 강사의 교재를, 헌법은 김유향 강사의 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상법은 학교수업 외에 별도로 기본서를 보지는 않았고, 다만 송옥렬 교수님의 상법강의를 참고교재로 사용하였으며, 행정법은 아래에서 후술하듯이 1~2학년 중에 집중적으로 공부한 시기가 없었으니 따로 교재를 두고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학교수업의 특성상, 해당 교과를 배우더라도 전체 맥락을 전부 배우기는 어렵다는 점,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주요판례만을 다루고 넘어가신다는 점을 고려하여, 깊이는 알지만 전체 맥락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강사의 교재를 기본서로 활용한 것입니다.

방학 중에는 다음 학기에 내가 수강할 과목을 미리 선정하고, 이에 맞추어서 학원 강의 및 교재를 선행학습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 2학기에 민사소송법1(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은 민사소송법이 1,2로 되어있었으므로, 다른 학교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을 들을 예정이라면, 1학년 여름방학 중에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강의 전체를 한 번 들은 뒤 강사의 교재로 1회독을 하여, 1학년 2학기를 준비하고, 1학년 겨울방학이 시작하면 다시 박승수 강사의 민사소송법 교재를 1회독하여 1학년 2학기에 배웠던 민사소송법1을 복습하는 한편, 2학년 1학기에 수강하게 될 민사소송법2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회독 수를 늘렸는바, 3학년이 된 이후에 민사법과 형사법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유효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학교수업의 활용에 대하여

학교 수업의 경우,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지나치게 치우친 견해만을 피력하시기도 하시고, 판례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신다는 점에서 수업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 및 제8회 변호사시험을 회고해보면, 막상 시험장에서 제가 썼던 학설들은 3학년이 되어서 공부했던 내용이 아니라 1학년이나 2학년 때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외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3학년이 되고 나서 배웠던 학설들은 막상 시험장에서 긴장이 돼서 잘 생각나지 않았던 반면에, 1~2학년 때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다른 학설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비판하셨던 기억은 시험장에서조차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형사법 제2문에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고득점이 나왔던 것에 비추어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이나마 언급한 것이 득점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된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학교수업을 변호사시험 전에 내가 쟁점과 학설에 대하여 장기기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학교수업을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Ⅲ. 3학년 이후부터 변호사시험까지 학습방법(본격적인 수험생활)

로스쿨 3학년의 학습목표는 시험 전날에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임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교재를 선택하여 우직하게 파는 것(회독 수 늘리기)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모르는 것이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공부법이나 교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래에서는 제가 공부했던 교재와 시기별, 유형별 학습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한 에피소드를 통하여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 수험교재 선정하기

(1) 암기장 선택여부

2018년 3월에 3학년 수험생활에 돌입하면서, 처음에는 소위 암기장이라고 불리는 교재에 대하여 저도 조금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다만, 먼저 시험을 쳤던 로스쿨 6기, 7기 선배들은 저에게 빠르게 암기장으로 전환할 것을 강권하였고, 저 또한 앞선 이들의 경험을 믿고 암기장으로 단권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운동환 강사의 암기장으로, 상법은 장원석 강사의 작은 상법의 정초로, 형법은 이인규 강사의 캡슐시리즈로, 형사소송법은 처음에는 이재철 강사의 교재를 택하였으나, 3학년 여름방학 무렵에 김영환 강사의 블랙박스로 바꾸었습니다. 헌법 또한 김유향 강사의 '300'으로 시작하였으나,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차강진 강사의 캡슐시리즈로 바꾸었고, 행정법은 정선균 강사와 류준세 강사의 암기장을 복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기본서를 요약 및 압축하여 단권화하는 방법과 암기장으로 빠르게 갈아타는 방법 중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실제로 성적이 우수했던 로스쿨 동기 중에서는 전자의 방식으로 고득점을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의 교재를 선택하든 간에 시험 전날 그 교재를 다 볼 수 없다면, 그 교재는 포기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빠르게 암기장으로 전환한 덕분에,

과목당 적게는 3회독 많게는 5회독까지 하였음에도 시험 전날에 교재를 다 보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다는 점에서 3학년 되기 전까지 특별히 기본서를 열심히 파온 분이 아니라면 암기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암기장 선택시 고려사항

암기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나와 강사의 교재 서술방식이 잘 맞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환 교재의 경우 모의고사 시험을 치면서 '암기장에 없는 내용이 모의고사에 나온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이 끝난 후 암기장을 확인해보면, 해당 쟁점이 암기장에 당당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당황하곤 했습니다.

반면에 이인규 강사의 교재는 저와 무척 잘 맞았는바, 6월 모의고사 직전에 1회독 한 교재이고 10월 모의고사가 끝날 때 까지 2회독 밖에 못했음에도 3번의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 공부에 들이는 시간 대비 성적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위 경험으로부터 암기장은 담긴 내용이 적은 것 같아 보여도 시험에 필요한 지식 대부분이 있다는 점과 암기장은 매우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숙지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교재 서술방식이 나와 맞을 경우 위 시간을 단축하기 쉬운 반면에, 강사의 서술방식이 나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회독 수를 거듭한 후에야 암기장의 내용을 체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처음 암기장 선택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시기별 공부방법에 대하여

(1) 저의 공부방법에 대하여

저는 조세법을 2학년 때 특성화과목으로 선택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행정법과 상법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학년 겨울방학에는 정선균 강사의 행정법과 장원석 강사의 교재를 위주로, 약 2달 동안 위 2과목만 집중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3학년 1학기가 시작하면서, 학교수업은 소위 '연습과목' (즉, 변호사시험 사례형 또는 기록형 문제를 풀어보는 수업) 위주로만 수강하면서, 부족했던 기록형 연습을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3~4월에는 주로 민사를 위주로 공부하였고, 5월에는 형사를 위주로 공부하였으며, 7~8월초 사이에는 공법을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8월 모의고사를 친 결과, 공법이 아직까지도 구멍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어 8월 모의고사 직후부터 10월 모의고사까지는 공법과 민사법을 위주로 공부하였고, 10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순서대로 변시 7과목의 회독수를 늘리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12월에는 최신판례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2) 공부방법에 대한 평가

첫 번째로, 3학년이 되기 전에 변호사시험 7과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3학년 전에 행정법과 상법공부가 전혀 공부 안되어 있어서 수험생활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학년 수험기간을 통틀어서 공법에 제일 많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결국 형사법과 민사법에 비하여 공법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성적이 나왔다는 점에서도 기초를 다지는 1~2학년 때 최소 1번은 해당 과목을 전체적으로 공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급적 한 번 정한 교재와 강사를 바꾸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운동환 강사의 암기장을 수험서로 정하여 공부를 해왔음에도 모의고사에서 분명히 교재에 있음에도 자꾸 틀리자, 10월 모의고사 직후에 송영곤 강사의 파이널 강의 및 교재를 선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송영곤 변호사님의 강의력 및 교재는 우수했지만, 문제는 약 6개월 이상 운동환 강사의 책을 보다가 강사와 교재를 바꾸어버리자, 분명히 같은 수험용 민법임에도 자꾸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느낌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자신감이 하락했고, 이차적으로는 공부시간이 배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월말부터 12월초까지 처음 예상한 것보다 회독수를 늘리는데 실패하였고, 이는 시험 전 날까지도 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결국 저는 민사법 시험 전날 민법은 다시 운동환 강사의 교재로, 민사소송법은 송영곤 강사의 저서로 마무리해야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 나왔으나 위와 같은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부족한 공법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3. 유형별 공부방법에 대하여

(1) 객관식의 경우

방대한 객관식 문제집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르게 풀어본다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공부할 무렵에 저는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면, 1문제를 풀고 5가지 보기에 대한 해설을 전부 읽고 다음문제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객관식의 경우, 변별력을 주는 문제라면 보통 보기 1개는 암기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객관식을 해결하는 요령은 애매한 1개를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4개의 보기에 대하여 정답여부를 확신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맞는 보기, 틀린 보기를 눈에 바르는 방법밖에 없고, 모의고사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은 매해 반복되는 보기들이 있으며, 이렇게 반복되는 보기들은 문제를 빠르게 반복해서 보는 것으로 해설을 장황하게 보지 않더라도 정답인지 오답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객관식을 하나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명목 하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게 될 경우, 위와 같은 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방대한 양을 소화할 시간조차 부족하게 될 수 있는바, 민사법을 제외하면 과목 당 3일 이내에 마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사례형과 기록형의 경우

객관식 공부방법과는 달리 사례형과 기록형은 여러 출판사의 기출문제 해설집을 보면서 차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유니온 기출문제 전집을 구매하여 수험준비를 해왔으나, 사례형과 기록형을 공부하면서 유니온의 해설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다른 강사 및 출판사의 교재를 별도로 구매하여 비교해본 결과, 같은 기출임에도 다르게 해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단 많이 써봐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이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제한시간 내에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12월이 되면 시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신감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써온 답안지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자신감이 흔들릴 때마다 그동안 작성한 답안지의 높이를 보면서 저 자신

이 1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IV. 학습방법 이외에 수험생으로서 생활습관, 멘탈관리 등에 대하여

1. 공부장소 및 생활습관에 대하여

저는 소위 말하는 카공족으로서 10월 모의고사 이전에는 학교수업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공부하는 날을 제외하면, 주로 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물론, 학교에 교재 및 학습도구를 두고 다님으로써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저는 예전에도 고시공부를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시험을 망친 적이 있다 보니 무엇보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였고, 어느 한 공부장소에서 능률이 생각만큼 안 나오면 다른 공부장소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자 하였는바, 저에게는 카페가 공부장소로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또한, 동기 중 어떤 친구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숙면을 하고 밤 11시부터 열람실에 나와서 다음날 점심 무렵까지 공부하고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였으나,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였는바,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공부스타일을 찾는 것이며, 형식적인 것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순 공부시간의 확보에 대하여

저는 4월경 같이 공부하던 지인으로부터 스터디헬퍼라는 앱을 소개받아 사용하였는데, 처음에 나를 놀지 않고 공부했다고 생각했음에도 순 공부시간이 8시간조차 나오지 않은 사실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후 스스로의 공부습관을 점검한 결과, 식전후로 사람들과 지나치게 대화하는 시간이 많거나, 공부 중간

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습관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고친 결과,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 순 공부시간을 10시간 내외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공부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순 공부시간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수험생이다 보니 당연히 공부에 대한 의욕과 절박함이 있기에 처음에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이라는 장기레이스에서 계절에 따라 또는 시험결과에 따라 자신감이 흔들리면서 공부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공법 성적이 저조했던 8월 모의고사 직후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성적에 괴로워하는 저에게 스터디 합류를 권유해주었고, 스터디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은 물론, 제가 쟁점

을 잘못 짚는 습관들을 지적받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V. 맺음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로스쿨에 입학하신 분들은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분들임이 분명하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는데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1년의 수험생활을 견뎌내는 것뿐이며, 이 과정에서 간혹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에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공부해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글이 고된 수험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